

2019 중앙일보 대학평가 세부 지표 분석

대학 특성 못 살리는 지표…내실 기하는 ‘참고’ 삼아야

2018, 2019 중앙일보 대학평가 세부지표 순위 추이

교수연구(8→8위)

	2018	2019
교수당교외연구비	11[9.3]	13[8.8]
교수당자체연구비	8[7]	11[6.2]
국제논문피인용	8[14.5]	16[12.2]
국제논문게재	9[7.8]	10[7.8]
인문사회국내논문게재	23[2.8]	24[2.7]
인문사회국내논문 피인용	27[5.1]	17[5.5]
인문사회저역서발간	7[3.7]	13[3.2]
인문사회저역서피인용	37[1.7]	29[2]
과학기술교수당 기술이전수입액	10[5.7]	9[5.5]
과학기술교수당 산학협력수익	32[3.7]	27[4.1]

교육여건(5→6위)

	2018	2019
교수확보율	1[13]	1[13]
등록금대비장학금 지급률	31[6.6]	30[6]
강의규모	51[0.7]	46[0.4]
등록금대비교육비 지급률	31[2.6]	29[2.6]
세입대비기부금	14[2.6]	16[2.6]
기술사수용률	25[3.8]	21[4.3]
학생당도서자료 구입비	17[3.7]	18[3.5]
외부경력교원비율	42[1.5]	34[1.8]
외국인교수비율	24[2.5]	24[2.3]
외국인학생비율	4[8.6]	2[8.4]
외국인학생다양성	34[2.4]	38[1.9]
교환학생비율	5[8.3]	6[7.7]

학생성과(11→14위)

	2018	2019
순수취업률	26[7.6]	22[8.3]
유지취업률	9[10.9]	17[8.8]
중도포기율	12[6.8]	12[7.4]
창업교육비율	1[10]	1[10]
졸업생 창업활동	14[5.3]	-
학생창업 지원및성과	-	30[3.1]
현장실습참여학생비율	21[5.9]	12[6.8]

평판도(9→7위)

	2018	2019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	9[8.1]	7[6.4]
입학을 추천하고 싶은 대학	9[7.2]	8[5.7]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9[3.7]	7[3.6]
국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가 큰 대학	9[3.2]	10[3.0]
자녀 진학 선호대학 (신설지표)	-	8[2.9]

(괄호 안은 점수)
2018년 57개, 2019년 50개 학교 대상

김수혁 기자 sherk@khu.ac.kr

#. 우리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종합순위 6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학교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순위의 현실적 합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이 평가 자체가 학교 운영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우리신문은 단순한 순위평가 결과 보도를 넘어 숫자로 표현된 여러 지표들이 우리 학교 곳곳에서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숫자가 말해주지 않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 허와 실에 관해 방학 기간 대학주보 온라인 홈페이지(media.khu.ac.kr/khunews)에 연재 기획을 발행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해와 올해의 상세한 평가정보를 바탕으로 등락이 두드러진 세부지표에 관해 짚어봤다.

중앙일보에서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는 몇몇 정보는 종합 순위 등과 함께 보도를 통해 간략하게 소개된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간소해 개별 학교의 자세한 평가내용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중앙일보 대학평가팀은 정책 운영 참고자료 목적으로 각 학교에 평가 근거가 된 세부지표별 성적과 지표 산정 기준을 포함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신문은 외부기관 대학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처 학술진흥팀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검토해 봤다.

먼저 영역별 등락 추이를 살펴보면 ‘교수연구’ 영역은 그대로 8위를 지켰고 ‘평판도’ 영역이 9위에서 7위로 상승했다. 반면, 교육여건 영역은 지난해 5위에서 6위로, ‘학생성과’ 영역은 11위에서 14위로 하락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점수를 산정하는 ‘평판도’ 영역은 설문조사라는 특성상 정밀함이 떨어지고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올해 평가 방식에 변동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았다. 지난해 ‘평판도’ 영역은 기업체 및 정부부처 인사담당자에게 묻는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 고교 교사에게 묻는 ‘입학 추천하고 싶은 대학’, 기업 인사담당자와 고교 교사에게 묻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다. 판단되는 대학’과 ‘국가 지역 사회에 기여가 큰 대학’ 4개 지표로 구성돼 우리학교는 모두 9위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학부모에게 묻는 ‘학부모 진학 선호 대학’ 지표가 추가됐다. 또 발전 가능성 지표와 국가 지역 사회 기여도 지표에 학부모 설문 결과를 추가했다. 우리학교는 신설된 ‘학부모 진학 선호 대학’ 지표에서 8위를,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과 ‘발전 가능성’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지표에서 두 계단씩 상승했지만 ‘국가 지역 사회에 기여가 큰 대학’ 지표에서는 한 계단 하락했다.

‘교육여건’ 영역은 결론적으로 순

위가 하락하긴 했지만 점수 상으로는 56.9점에서 55.2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우리학교는 이 영역 중 ‘교수확보율’(1위), ‘외국인학생비율’(2위), ‘교환학생비율’(6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강의규모’와 ‘외부경력교원비율’에서는 하위권을 기록했다.

‘강의규모’ 지표는 온라인 강의를 제외하고 전체 개설된 강의 가운데 소수 정원 강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지표 계산식은 ‘(20인 이하 강의 수)×2+(21~50인 강의 수)×1/(전체 강의 수)’로, 정원이 20인 이하인 강의에 가중치를 준다. 그런데 정원 21명부터 50명까지를 차등 없이 묶어 정원 규모 구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단순하다는 문제 있다. 실제로 우리학교는 올해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재도약 개편을 통해 필수교과인 인간의 가치탐색, 세계와 시민의 수강정원을 기존 4~50명 규모에서 25명 선으로 조정 했지만 이 지표상으로는 무의미한 변화인 셈이다.

‘외부경력교원비율’ 지표의 계산식은 ‘(최근 5년간 임용한 외부 경력 교수/최근 5년간 신규임용 교수)*100’이다. 이 계산식의 외부경력 교수란 대학 알리미에 공시된 산업체 경력 교원을 의미한다. 이 또한 오랫동안 학교에 몸 담고 학생들을 가르쳐 온 경험보다 외부경력을 높게 평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부경력 가운데에서도 시민사회단체 활동이나 정

부 부처 경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이 교육여건을 가늠한다는 취지에 맞는지 의문을 남긴다.

한편, 우리학교는 ‘외국인학생비율’과 ‘교환학생비율’ 등 이른바 국제화 지표에서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여건’ 영역에 포함돼 있는 ‘외국인학생의다양성’ 지표에서는 50개 학교 중 38위를 기록해 비교적 낮은 순위를 보였다.

‘학생성과’ 영역에서는 지난해 ‘창업 교육비율’과 ‘현장실습참여학생비율’ 두 지표의 개선이 우리학교의 비약적인 순위 상승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학교는 두 지표에서 지난해 1위 와 21위, 올해 1위와 1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창업교육비율’ 지표의 변별력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창업교육 강좌를 이수한 학생의 비율

을 나타내는 ‘창업교육비율’은 20%를 상한선으로 두고 이를 충족하면 만점으로 본다.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조사 대상 50개 학교 가운데 무려 18개 학교가 만점을 받아 공동 1위로 집계됐다. 우리학교는 창업교육으로 집계되는 강좌가 주로 전공과 연계되지 않는 후마에 개설돼 있고 상대적으로 강의 질이 낮은 온라인 강의도 포함된다. 학술진흥팀 이진호 계장은 “아무래도 창업교육은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학교에서 크게 중점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지표상 결과와는 달리 전 공연계 부족 등 아쉬운 부분이 있는게

사실이다”라면서 “창업교육비율 지표는 관계자들 사이에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어 곧 사라지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언론사 대학평가가 대학 운영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주장에 대해 “학교 내부에서 신경 쓰지 않던 부분을 지적하는 등 그런 측면이 아예 없다는 뜻하지만 대학 운영을 특정 방향으로 고착시킬 위험성도 병존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사 대학평가에서 사용하는 정량지표들이 결국은 돈을 어디에 얼마나 많이 썼느냐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면서 “현재 순위를 유지라도 하려면 곧 지금의 지원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고 그렇다면 대학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운영 변화도 힘들어지게 마련이다”라고 말했다.

언론사 대학평가의 문제점은 대학 안팎에서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입시 철이 되면 대학들을 일렬로 줄 세운 평가 결과가 대대적으로 보도된다. 각 대학들은 종합평가부터 세부평가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골라내 홍보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있었던 우리학교의 총장후보자 토론회에서도 많은 후보들이 대학평가 순위를 유지, 상승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결국은 대학 스스로가 언론사 대학평가의 지속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